

## 입양가족의 뿌리찾기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권 지 성\*\*

(침례신학대학교)

안 재 진\*\*\*

(숙명여자대학교)

변 미 희

(백석대학교)

최 운 선

(남서울대학교)

###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입양가족들의 뿌리찾기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뿌리찾기를 시도한 입양가족들과 접촉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최종 다섯 가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제들은 '입양됨의 인식', '호기심 폭발', '불안한 기다림', '진실을 만나는 순간', '그래, 내가 진짜 엄마야',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등이었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입양가족들의 뿌리찾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안하였으며,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풍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연구들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주제어: 입양가족, 뿌리찾기, 질적 사례연구

\* 이 연구는 2009년 한국입양홍보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연구과정을 지원한 한국입양홍보회 관계자들과 연구에 참여한 입양아동, 입양부모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입양가족의 뿌리찾기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뿌리찾기를 시도한 경험을 가진 입양가족들과 접촉하여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사례연구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이 입양가족의 뿌리찾기에 관심을 둔 것은 이 주제가 사회 일반 구성원들이나 입양가족들에게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민감한 입양 관련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주제에 초점을 두고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탐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일반 사회구성원들에게 ‘뿌리찾기’라고 하면 TV 프로그램에서 종종 보는 바와 같이 해외입양인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와 자신의 원가족을 찾아다니는 장면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또는 TV드라마에서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생부모를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면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뿌리찾기’는 학령기 전후의 아동과 그 가족들이 경험한 현상이다. 입양실무가 발전한 외국에서도 입양인의 뿌리찾기는 보편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입양특례법에 규정된 비밀보장 원칙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 법적으로 뿌리찾기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뿌리찾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뿌리찾기는 학령기 이전부터 시작되는 입양인의 전생애적 발달과업이다(박인선,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전후의 아동과 그 가족들의 뿌리찾기 경험을 탐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뿌리찾기는 입양아동, 최소한 공개입양아동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인데(박인선, 1994; 심석순, 2000; Melina, 1998; Brodzinsky, Schechter and Henig, 1992),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일부 입양아동들은 친생부모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만으로 뿌리찾기에 만족한다. 다른 일부 입양아동들은 입양부모에게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묻고 답을 듣는 수준에 그친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 아동들은 입양부모와 함께 친생부모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실제로 친생부모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다양한 양상들을 모두 뿌리찾기라는 범주로 포괄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직접 친생부모를 만나기 위해 입양아동과 그 가족들이 직접 찾아 나선 경우들로 뿌리찾기 개념을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일부 예외 사례도 있지만, 이러한 뿌리찾기 시도들이 대부분 입양기관을 통해 시작되거나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양기관과 접촉하여 친생부모에게 연락하여 만나줄 것을 요청한 경우만으로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그리고 뿌리찾기에서 ‘뿌리’는 친생부모를 염두에 둔 것이며, 이것이 주로 국내 공개입양 아동들에게만 허용되는 일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국내 공개입양 아동과 가족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다양한 문헌들(박인선, 1994; 김경주, 1998; 심석순, 2000; Bertocci and Schechter, 1987; Brodzinsky, Schechter, and Henig, 1992; Melina, 1998; Reits and Watson, 1992; Schooler, 2001; Schechter and Bertocci, 1990)을 검토하고, 입양아동과 가족들을 만나 본 경험을 토대로 할 때, 뿌리

찾기는 입양아동과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다. 먼저, 입양아동들에게는 뿌리찾기가 입양인으로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포괄적 질문의 첫 번째 세부 질문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뿌리찾기는 입양의 다른 주요 이슈인 상실과 애도, 애착 형성에도 관련되어 있다. 자신을 낳은 부모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동들은 상실감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해 애도하게 되며, 이것이 입양부모와의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입양부모들에게도 뿌리찾기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유전 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자기 자녀의 유전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하는 입양부모들로서는 입양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들을 이해하기 위해 친생부모의 그것들을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공개입양가족들에게 아동의 뿌리찾기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대부분의 입양아동들이 뿌리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개입양부모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뿌리찾기를 시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뿌리찾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양아동과 가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먼저, 입양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입양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뿌리찾기를 시작하였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되어 아예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연락이 되더라도 친생부모 쪽에서 만남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친생부모에게 연락이 닿았고 만남을 허락하였다면, 두 번째 장애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다. 미지의 존재와 만나는 일은 늘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이 이어진다. 친생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쩔 것인가 또는 자녀가 친생부모에게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상황과 가능성들이 이들 가족 앞에 펼쳐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국내입양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우리가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입양기관 실무자들의 개별 경험을 통해, 그리고 입양가족들의 공동체적 정보공유를 통해 몇몇 뿌리찾기 사례들이 구전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자들의 문제제기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즉, 연구자들은 국내입양 현장에서 뿌리찾기와 관련되어 어떤 일들이 벌어져왔고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입양가족들이 뿌리찾기를 시도하고자 할 때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다양한 상황과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양기관들과 입양실무자들도 여기에서 실천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뿌리찾기 연구가 비교적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Bertocci and Schechter, 1987; Brodzinsky, Schechter, and Henig, 1992; Melina, 1998; Reits and Watson, 1992; Schooler, 2001; Schechter and Bertocci, 1990),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적 연구접근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거나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차이가 있는 서구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내입양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인선, 1994; 김경주, 1998; 심석순, 2000)와 국내입양가족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뿌리찾기 이슈가 언급된 경우는 있지만(이미선, 2005; 박미정·이숙영, 2007), 국내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뿌리찾기의 역동적인 과정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분석한 경우는 없었다.

이와 같이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한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데, 이는 뿌리찾기가 '입양 사실의 공개'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국내 공개입양의 역사가 아직 짧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즉, 뿌리찾기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의 입양사실을 알고 성장해야 하며, 또한 뿌리찾기에 허용적인 가정 내 분위기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대한 서비스는 현재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양제도<sup>1)</sup>와 상충하기 때문에(이미선, 2004),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기관의 태도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진행된 뿌리찾기 사례들을 탐색하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뿌리찾기를 시도한 가족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주제를 탐구하고, 과정을 깊이 파악하며,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주관적 의미를 포착하고자 할 때는 질적 연구접근이 적합하다. 또한 이 연구가 뿌리찾기라는 구체적인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입양가족이라는 사례들을 활용하였고, 각 사례들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심층면접 외에 연구참여자들의 기록물, 관찰 등 다양한 자료원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접근 중에서도 질적 사례연구 접근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통해 뿌리찾기 이슈를 탐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국내 입양가족들의 뿌리찾기 경험은 어떠한가?"

## 2. 문헌검토

### 1)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대한 이론적 관점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외국의 입양 실무나 학계의 입장은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비밀입양을 원칙으로 하는 전통적 입양인식 하에서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소수의 문제가 있는 입양인들의 일탈행동으로 보는 일탈행동론적 관점이다. 둘째는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입양인들은 뿌리찾기를 시도하지 않는 입양인들에 비해 자아개념이나 자존감 등의 점수가 낮고 불행하며, 보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나, 뿌리찾기를 통해 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뿌리찾기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문제해결론적 관점이다. 셋째는 뿌리찾기를 입양인들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보편적 욕구로 보는 인지발달론적 관점이다(박인선, 1994).

초기의 입양연구들은 입양 자체가 성공적이지 않았거나(Triseliotis, 1973), 가정 내 입양과 관련된 의사소통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Schechter and Bertocci, 1990), 입양인들이 뿌리찾기를 한다고

1) 입양특례법 제12조 3항에서는 '입양알선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2항에서는 '제12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뿌리찾기의 이유는 초기에 제안된 것보다 매우 다양하며, 그것이 꼭 문제나 어려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유전적·사회적 뿌리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것은 입양인에게는 특이한 일이 아니며 부적응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Melina, 1998). 해외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박인선(1994)의 논문에서도 입양인들의 뿌리찾기 욕구가 보편적 욕구임을 증명하면서, 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대한 위 세 가지 관점 중 인지발달론적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대한 관심이 아동기 이후부터 성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발전해 나가며, 뿌리찾기 시도 역시 성인기 초기 이후에 연령에 따라 서서히 행동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뿌리찾기가 입양인들의 입양에 대한 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심석순(2000)과 Brodzinsky와 동료들(1992)의 연구에서도 뿌리찾기에 대한 욕구는 입양인들의 보편적인 욕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 2) 뿌리찾기의 동기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입양인의 뿌리찾기의 동기는, 첫째, 입양된 이유에 대한 궁금증, 둘째, 친생부모의 유전적인 정보와 그동안 단절되었던 입양 전 삶의 연결점을 찾는 삶의 연속성에 대한 욕구, 셋째는 입양인으로서 정체감 확립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어떤 입양인은 친생부모를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뿌리찾기를 원하는 입양인과 그렇지 않은 사례를 충분히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Melina, 1998).

Schooler(2001)는 입양인들이 뿌리찾기에 참여하게 되는 일반적인 이유가 크게 모험으로서의 뿌리찾기 과정과 치유로서의 뿌리찾기 과정 두 가지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영아기에 입양된 입양인들과 연장아로서 입양된 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내포된 동기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영아기에 입양된 입양인들의 뿌리찾기 동기는 의료 기록을 얻고자 하는 욕구, 자신과 닮은 누군가를 찾고자 하는 욕구, 더 많은 정보(입양 당시의 상황과 친생가족의 현재 상황 등)에 대한 욕구, 삶의 전환기(결혼, 임신, 출산, 입양가족의 죽음 등)를 맞아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연속성에 대한 욕구, 단절되거나 불완전하게 여겨졌던 삶의 조각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욕구이다. 반면, 영아기에 입양된 입양인들이 뿌리찾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관심, 입양부모에 대한 충성심, 뿌리찾기가 옳지 않은 일인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이다.

연장아기에 입양된 아동들 중 일부는 과거로 돌아가 종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어린 시절 학대나 외상을 경험한 입양인들은 자신을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처럼 여기기도 한다. 이들은 치유와 해결을 위해 뿌리찾기를 필요로 한다. 물론 영아기에 입양된 아동들의 뿌리찾기에 대한 욕구를 연장아로 입양된 아동들도 일부 공유한다. 또한 연장아기에 입양된 아동들이 뿌리찾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개방입양(open adoption)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미 충분한 기록과 기억을 갖고 있어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아동들은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뿌리찾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한편, Reits와 Watson(1992)은 뿌리찾기가 정보에 대한 탐색이든, 친생모와의 재회를 의미하는 것

이든 뿌리찾기에 내재된 동기는 크게 (1) 왜 입양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 욕구, (2) 친생모와의 고유한 유전적 연결고리 또는 자기 자신의 역사와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3) 스스로를 완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기 위해 과거의 흩어진 조각들을 끼워 맞추고자 하는 욕구 등 세 가지라고 보았다. (1)번은 특히 중요한 이슈로 이는 이전 시기의 해결되지 않은 상실감으로부터 비롯된다. 거의 예외 없이 친생부모와의 재회에서 다루어지는 첫 번째 주제는 “왜 나를 입양 보내셨나요?”이다. 입양인들은 자기 인생의 이슈를 풀기 위해, 특히 왜 포기되었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자신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친생부모가 자기를 원했고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뿌리찾기를 하는 것이다 (Melina, 1998).

해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석순(2000)의 연구에서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이유는 완전한 정체감의 확립, 완성감의 확립, 호기심 충족의 순이었다. 이미선(2005)과 박미정·이숙영(2007)도 해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방문 경험, 방문 목적, 뿌리찾기 이유, 사후관리 서비스로서 뿌리찾기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였는데, 사후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기로는 ‘친가족을 찾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 역시 친가족 찾기여서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가 중요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뿌리찾기의 과정

Reits와 Watson(1992)은 뿌리찾기 과정의 5단계를 밝히고 있다. 이 단계들은 (1) 뿌리찾기를 시도하기로 결정하기, (2) 친생가족의 이름 알아내기, (3) 친생가족이 있는 곳 찾아내기, (4) 만남을 위한 접촉, (5) 재회 경험을 통합하기이다.

첫 단계인 뿌리찾기 결정은 대부분의 입양인들에게 오랜 내적 갈등 끝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정은 입양인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결혼, 출산, 입양부모의 죽음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입양인은 대개 입양기관이나 법원, 또는 이미 뿌리찾기를 시도했던 지지집단의 구성원에게 전화를 거는 것으로 첫 번째 조치를 취한다. 만약 이러한 첫 번째 시도에서 정보를 얻거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면, 그들은 뿌리찾기 과정을 강화한다. 한동안 열렬히 활동을 하다가, 그들은 뿌리찾기를 잠시 미뤄두거나 중단한다. 그러나 뿌리찾기를 향한 열망은 남아있어서, 이들은 곧 활동을 재개한다.

두 번째 단계는 입양인이 친생가족의 이름을 알아내면서 시작된다. 이 시기가 되면 입양인은 자신의 욕구와 가족체계 뿐 아니라 자신이 찾고 있는 친생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뿌리찾기 결정을 평가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입양인들은 뿌리찾기 과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도 있고, 꿈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불안이 증가하면서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

뿌리찾기를 지속하면, 다음 단계로 친생가족이 사는 곳을 알아내려고 시도하게 된다. 입양인들은 재회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친생가족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 사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 늘 쉬운 것은 아닌데, 특히 이름이 흔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많은 입양인들은 이 기간 동안 큰 좌절을 경험한다. 그러다가 뿌리찾기의 대상을 발견하면, 다음 단계인 접촉 단계에 들어선다.

뿌리찾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접촉은 많은 노력과 감정적 투자의 최고조를 이룬다. 입양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할 수 있다. 중개인을 고용할 수도 있고, 직접 접촉할 수도 있으며,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혼자 있을 때를 찾아 방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전화로 먼저 접촉하는 것을 선호한다. 대개 입양인들은 생일이나 이름 등을 이용해서 접촉을 시도한다.

뿌리찾기의 마지막 단계는 뿌리찾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남은 삶에서 지속된다. 갑자기 서로의 삶 속에 뛰어든 이들은 이후의 지속적인 관계를 두고 협상해야만 한다. 만남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만남 후의 단계에 대한 서곡인 것이다.

#### 4) 뿌리찾기의 결과

Schechter와 Bertocci(1990)는 뿌리찾기에 관한 12개의 연구를 정리한 결과, 실제로 친생가족과 재회한 비율은 연구에 따라 22%에서 66%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들은 모두 뿌리찾기의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뿌리찾기의 긍정적 결과로는 친생부모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 더 완전하고 통합된 존재가 된 느낌, 더 이상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 입양 전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느낌으로부터 벗어난 점, 더 나은 정체감을 확립하게 된 점, 입양 부모와의 관계가 향상된 점 등이 연구에 언급되어 있으며, 입양부모들 또한 뿌리찾기 이후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ertocci와 Schechter(1987)의 연구에서, 친생가족에 대한 뿌리찾기를 일정 부분 완수한 응답자들은 모두 뿌리찾기 이후 자신의 삶에 상당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했다. 가장 많은 이들이 언급한 것은 자존감, 자신감, 자기주장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변화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과 닮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한 신체 이미지와 자기 인식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이야기했으며, 많은 이들이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연결된 느낌', '소속감' 등을 언급했다. 마음의 평화와 평온함을 언급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졌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 일부 응답자들은 뿌리찾기가 그들이 성장해나가기에 있어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도록 해줬다고 말했다(Schechter and Bertocci, 1990에서 재인용).

그러나 모든 뿌리찾기가 행복한 재회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례에서는 생모와의 만남이 끔찍할 정도의 외상(trauma)으로 남기도 한다(Brodzinsky, Schechter, and Henig, 1992). 뿌리찾기를 위한 수 년 간의 노력과 환상 끝에, 일부 입양인들은 친생가족의 냉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생모가 빈곤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혹은 새로 나타난 자식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거나 정서적 지지를 구하려는 친생모에 의해 갑작스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뿌리찾기를 시도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양부모의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입양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입양부모 몰래 뿌리찾기를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뿌리찾기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입양인들조차도 뿌리찾기 과정 자체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Brodzinsky와 Schechter, Henig(1992)는 뿌리찾기에 참여한 94명의 성인입양인들에 대한 연구 결과, 뿌리찾기 과정이 입양인들로 하여금 적어도 인간 발달의 6가지 보편적 주제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상실과 애도, 질투와

시기, 성 정체성, 정체성의 통합, 인지적 부조화, 신체 이미지가 포함된다.

입양인들이 뿌리찾기를 시작하는 동기와 과정, 그 결과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으며, 따라서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뿌리찾기를 직접 실행에 옮기든 그렇지 않은 입양인들에게 있어 뿌리찾기는 입양에 대한 인지의 발달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발달 과업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 논란이 있어왔다. 뿌리찾기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성인 입양인들은 자신의 개인적 배경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성장과정에서 품었던 많은 질문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친생가족과 연결됨으로써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친생부모는 자신의 과거를 묻어둔 채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입양부모들은 자신이 기른 아이가 결국 자신들을 거부하고 친생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 슬픔 속에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Brodzinsky, Schechter and Henig, 1992).

### 5) 뿌리찾기를 시도하거나 시도하지 않는 입양인들의 일반적 특성

뿌리찾기를 시도한 입양인들의 비율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약 15%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뿌리찾기가 보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전에 봉인되었던 기록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입양인의 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Brodzinsky, Schechter and Henig, 1992). 실제로 해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석순(2000)의 연구에서는 친생부모를 이미 찾은 입양인들을 포함하여 조사대상자 중 78.5%의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고 싶다고 하여 뿌리찾기가 보편적 욕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연령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없다. 몇몇 입양인들은 청소년기(13세~19세)에 적극적으로 뿌리찾기를 시도하는가 하면, 일부는 성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적극적으로 친생부모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친생모를 찾아 나서지 않더라도 모든 입양인은 상상 속의 뿌리찾기 과정에 참여하며, 친생부모에 대한 환상과 호기심이 수반되는 이러한 보편적 과정으로서의 뿌리찾기는 대개 학령기 초기에 입양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성장하면서 시작된다(Brodzinsky, Schechter and Henig, 1992).

적극적인 의미에서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입양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뿌리찾기를 시작하는 연령은 10대부터 60~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대개 25~34세 사이의 성인기 초기에 몰려있으며(이들의 평균 연령은 29세이다), 대다수는 여성이다. 이들은 대개 결혼을 했고, 중산층 이상의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Schechter and Bertocci, 1990). 또한 이들이 찾고 있는 대상은 주로 생모이며, 대개 상대방을 찾는데 성공한다(Reits and Watson, 1992). 심석순(2000)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많고 기혼인 경우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인들이 뿌리찾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인생의 주요한 사건들, 즉 결혼, 출산, 입양부모의 죽음 등에 의해서이므로, 뿌리찾기를 시도한 입양인들은 결혼, 출산, 입양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자녀 출산은 자신이 받은 유전적인 성질과 아이에게 물려준 것을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 여자는 생모의 경험이 궁금해진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입양인들이 뿌리찾기를 더 많이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입양인은 첫 아이를 낳은 후 유전적으로 연결된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말한다. 그 경험은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또한 입양부모의 죽음은 지금 찾지 않으면, 그 사이에 친생부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깨워준다(Melina, 1998).

한편, 뿌리찾기를 시도하지 않는 입양인들도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다. 비록 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뿌리찾기를 시도한 입양인들과 달리) 입양경험의 특정 측면, 예를 들면 부모가 입양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었던 방식 등에 대해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나 자아개념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자기 비하 척도에서 더 낮은 점수를 얻는 경향이 있었다(Schechter and Bertocci, 1990). Aumend와 Barrett(1984)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더 큰 정도의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양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정체성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chechter and Bertocci, 1990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단지 집단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드러난 차이일 뿐, 이들 두 집단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준거가 될 만한 것은 없다.

### 3. 연구방법

#### 1) 질적 사례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입양가족의 뿌리찾기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그 중에서도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첫째, 우리가 국내 입양가족의 뿌리찾기 경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둘째, 연구자들이 뿌리찾기의 실태와 같은 객관적인 양상들을 살펴보기 보다는 뿌리찾기 과정을 경험하는 입양가족들의 주관적인 의미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시도한 것은, 첫째, 이 연구가 ‘뿌리찾기’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이슈 중심의 도구적 사례연구), 둘째, 심층면접 이외에 관찰, 입양일기와 같은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원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질적 사례연구의 특징을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가진 체계, 다양한 자료수집,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 등으로 볼 때, 이 연구의 주제에는 질적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이 연구에서 규정하는 ‘사례’는 입양아동을 포함한 입양가족이며, 이 연구의 주요 연구참여자는 입양모 5명이다.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그 면접들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양

과 질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아동들 대부분이 뿌리찾기 경험에 대해 짧게 답변하거나 사실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서 입양모를 통해 수집된 것 이상의 정보를 얻지는 못했다. 그 대신 뿌리찾기 전후와 생모와 만나던 날 입양아동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당시에 기록된 입양일기를 통해 자료를 보완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입양모 5명은 입양가족들의 자조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를 통해 소개를 받았고, 연구자들이 다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2명 이상의 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으며 입양 이후 지속적으로 공개입양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들의 자녀인 입양아동들은 모두 유아기부터 자신의 입양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입학 시기 전후부터 생모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왔다. <표 1>에 사례 아동들의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연구결과에 보고하였다. <표 1>과 연구결과에 제시된 아동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표 1> 사례 아동의 특성

분류	수영	민기·민영		영민·승호		민지	윤아	
입양연령	15개월	6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1개월	2개월	
현재연령	14세	13세	10세	11세	10세	9세	12세	
성별	여	남	여	남	남	여	여	
장애유무	무	무	무	지적장애 2급	무	무	무	
입양유형	유자녀	유자녀	유자녀	유자녀	유자녀	불임	유자녀	
뿌 리 찾 기	시작시기	9세	8세	8세	9세	8세	8세	7세
	종료시점	10세	9세	8세	10세	8세	9세	7세
	생모만남	만남	만남	못만남	못만남	못만남	못만남	못만남
	만나지 못한 이유	-	-	연락두절 (외조모: 연락반대)	만남 거부	연락 두절	연락 두절	만남 거부

질적 연구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사례수가 적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뿌리찾기의 전제가 되는 공개입양의 역사가 길지 않고, 생모를 찾아 나설만한 발달단계에 이른 입양아동의 수도 많지 않으며, 국내 입양실무에서 여전히 비밀입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참여한 사례들은 현재 시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뿌리찾기 사례의 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숫자는 적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사례들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 3)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과 기록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입양모 5명과 각각 1-2회

에 걸쳐 이루어졌다. 1-2회의 면접을 심층면접으로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으나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연구자들과 이전부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동안 입양일기나 사례발표 등을 통해 자신의 뿌리찾기 경험을 정리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구체적이고 깊은 경험들을 파악해 낼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들 입양모가 양육하고 있는 입양아동들 중 2명과도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입양모들로부터 얻은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뿌리찾기가 진행되는 동안 입양아동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한 입양모들의 입양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양아동의 경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입양일기 중에는 입양아동들이 직접 기록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뿌리찾기 과정을 진행하면서 입양아동이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편지도 수집하였다. 전체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8월초부터 12월말까지였다.

#### 4) 자료분석과 글쓰기

이 연구에서는 자료분석 방법으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면서 뿌리찾기와 관련된 이슈들을 찾아내었고, 모든 사례들을 분석한 뒤에는 이들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며 주제들을 발견해 가는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분석 과정은 근거이론에서 제안하는 ‘지속적 비교 분석’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첫 사례를 분석한 뒤, 두 번째 사례부터는 첫 사례와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 가는 식이었다.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뿌리찾기 단계와 맞물리는 6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연구결과 부분의 글쓰기는 이러한 분석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사례 내 분석에서는 각 사례들을 순서대로 제시하면서 이슈들을 찾고 비교해 간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례 간 분석은 모든 사례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발견하게 된 주제들을 뿌리찾기 단계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글쓰기 작업을 통해, 연구자들은 독자와 후속연구자들이 이 연구의 분석과정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우리는 그 교훈이 타산지석보다는 귀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 5) 연구의 질 검증

이 연구의 질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연구참여자 검토와 자료의 삼각화다. 연구자들은 자료분석과 글쓰기를 마친 뒤 연구참여자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고 진실성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삼각화는 입양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자료와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한 면접 자료, 기록물 자료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문제 외에는 정보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경우는 없었으며, 기억력의 문제도 삼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 4. 연구결과

### 1) 사례 내 분석

사례 내 분석은 뿌리찾기를 시도한 모든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생모를 만나지 못한 사례들도 포함된다. “생모를 만나지 못했는데 뿌리찾기를 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뿌리찾기 과정을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것 자체가 아동에게 의미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찾기 사례로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 가정에 여러 입양아동이 있는 경우, 한 아동에 대한 뿌리찾기 경험이 다른 아동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 (1) 수영이 사례

생후 15개월에 입양된 수영이는 현재 14세다. 입양모는 입양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왔지만, 수영이가 입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7세부터였다. 그 이후로는 종종 생모에 대해 호기심을 갖더니 9세 겨울방학 때부터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입양모와 아동간의 질문과 답변은 마주앉아 대화하는 형식이 아니라 어딘가를 같이 가다가 문득 질문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었고, 수영이는 줄곧 생모를 만나기를 원했다.

입양모는 수영이가 10세가 되던 해 3월에 입양기관에 생모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관에서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입양모는 다른 입양아동도 생모를 찾고 있고, 다른 성인입양인이 입양아들은 자신의 뿌리가 누군지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수영이에게 생모를 찾아줘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같은 해 4월 입양기관에 2차 요청을 하게 되었다. 입양모의 강력한 요구에 입양기관에서는 생모를 일주일 만에 찾아주었다. 생모는 수영이를 입양 보낼 당시의 주소에서 살고 있었고, 원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 생모는 만남에 대해 처음엔 거절했다가 두 번째 요청에 만나겠다고 연락해 왔다.

수영이는 입양모가 섭섭함을 느낄 정도로 약속한 날짜가 되기 일주일 전부터 만남을 기다렸다. 입양모는 수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생모와의 만남을 갖게 하는 것이 잘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수영이가 생모를 왜 그렇게 찾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만남 당일 수영이는 생모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기며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맞는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함께 간 기관 선생님에게 거울을 달라고 하여 거울을 보며 얼굴을 비교해보고 만져보고 안아보았다. 생모는 수영이가 자신보다는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15분에서 20분 가량 생모와의 만남을 가진 뒤 수영이는 동생과 나가서 놀겠다고 밖으로 나갔다.

만남 후에 생모는 입양기관 실무자를 통해 수영이를 다시 데리고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입양

모는 입양 당시에는 생부모가 나타나면 다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생부와 함께 만나자고 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만남 후 입양모는 수영이가 생모를 대하는 모습과 생모와 자신을 비교한 것에 대한 질투와 함께 수영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전처럼 안아주지도 않고 쌀쌀맞게 대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생모를 만나고 온 수영이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생겨났고, 미워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 생모를 만나게 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그 후로 수영이는 생모에 대한 기억을 물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궁금해 하지 않았다. 미술치료 중에 두 명의 엄마를 그리고 생모의 그림에는 눈, 코, 입이 없는 그림으로 표현했다. 생모를 만난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사춘기에는 잘 넘어갔다. 수영이의 동생도 생모를 찾고 싶어 하지만 수영이처럼 10살이 되면 찾아주겠다고 했다.

수영이 사례를 통해 뿌리찾기의 전형적인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입양아동의 경험을 살펴 보면, 첫째, 아동의 발달단계와 맞물려 아이들이 입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수영이에게는 그 시기가 9세에서 10세로 넘어가던 때였다. 둘째, 뿌리찾기 과정이 몇 단계로 나뉘져 있으며, 각 단계에서 뿌리찾기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촉진 요인 또는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수영이의 뿌리찾기 과정은 호기심 폭발 단계, 입양기관 신청 단계, 친생부모 접촉 단계, 친생부모와 입양가족이 만나는 단계, 사후 관계정리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또한 각 단계별로 촉진 또는 장애요인을 찾아보면, 호기심 폭발 단계에서는 입양부모의 결정, 입양기관 신청 단계에서는 입양기관의 정책, 친생부모 접촉 단계에서는 친생부모의 상황과 태도, 만남 단계에서는 당사자들의 태도, 사후 관계정리 단계에서는 역시 당사자들의 태도와 감정처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입양아동의 호기심에 대해 입양부모가 두려움을 가졌다면, 입양기관이 끝까지 거부했다면, 친생부모가 만남을 거절했다면, 만나는 장면에서 서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했다면, 만남 이후 각자 후유증만을 경험했다면, 수영이의 뿌리찾기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셋째, 아동기에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입양아동의 주된 욕구는 친생부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즉, 궁금증을 해결하고 나면 그것으로 뿌리찾기가 일단락되는 양상을 보인다.

두 번째로, 뿌리찾기 과정에서 입양부모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발견된 감정은 '질투'에 가까운 것이다. 즉, 생후 15개월을 제외하고는 출생 이후 지금까지 13년 동안 부모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가 생모를 보고 싶어 하고, 기대보다 친밀하게 생모를 대하며, 자신과 비교하는 것을 보고 미운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이때의 감정은 지금까지도 이들 모녀의 관계에 작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생모라는 존재가 현실 속에 등장하면서 부모자녀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눈, 코, 입이 없는 형태로 남아 있는 생모의 얼굴은 아동의 기억 속에서 점점 더 희미해지겠지만 중요한 시기가 될 때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뿌리찾기의 전 과정에서 입양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뿌리찾기 과정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만남 후 사후관리를 하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입양기관의 중재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 (2) 민기, 민영이 사례

생후 6개월에 입양된 민기는 현재 13세로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생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질문이 잦아지기 시작하여 입양부모가 생모를 찾아주기로 결정했다. 입양기관에 생모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고 민기의 감정조절에 도움을 주고자 신경정신과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생모의 사진을 미리 받았는데, 민기는 사진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싫어하기도 하고, 사진을 끌어안기도 하고 흥분하는 등의 양가감정을 보였다. 입양부는 생모를 만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민기와 같은 감정을 느끼며 평생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다가 민기가 사진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동감하지 못해 언짢아하고 슬퍼했다. 사진을 받고 한 달 뒤에 사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만남을 요청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금요일에 입양기관에서 만날 때와 장소를 정했는데, 민기가 오랫동안 만나고 싶어 한다며 토요일에 학교에 다녀와서 여유롭게 집에서 만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기는 만나기 바로 전에는 소파 뒤로 숨고, 돌아다니는 등의 불안 행동을 보였으며, 생모가 나타나자 소파 뒤로 숨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생모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식사만 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생모가 마주 보고 앉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만남을 끝내는 것에 대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다시 만나겠냐는 이야기에 한번 만났으면 됐다고 만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했다.

만나고 나서 2-3일 동안은 아무 얘기도 없었지만, 입양부모 앞으로 오는 우편물들을 보며 생모의 편지를 기다렸다. 입양모가 생모에게 편지를 보내달라고 연락했고, 그 후 3개월 동안 입양모는 메일을 통해, 생모는 우편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민기도 생모가 보낸 편지를 반갑게 읽어보았으며, 생부와 닮은 점 등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즐거워했다. 민기는 자신이 생모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 생모가 예뻐다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고, 만남 후에 생모도 집에 와서 함께 살면 안 되냐는 이야기를 했다. 입양모가 입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받아들였다. 그리고 생모에 대한 생각들은 민기의 관심에서 점점 벗어났다.

민기 사례를 수영이 사례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입양아동의 경우 뿌리찾기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점, 뿌리찾기 과정이 일련의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생모를 만난 이후 뿌리찾기 과정이 일단락되었다는 점과 입양기관이 뿌리찾기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입양아동이 생모와 지속적인 관계를 바랐다는 점과 입양부모 경험에서는 입양모가 생모를 만난 이후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 입양모와 생모가 일정 기간 교류를 지속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이슈의 경우 입양아동-입양부모-친생부모의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개방입양'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친생부모가 입양가족과 함께 살 수는 없지만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입양 자체도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 또는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입양모가 만남 이후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지 않은 것, 그리고 생모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입양모가 입

양자녀에 대해 확고하면서도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미 법률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나 확고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아동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역시 생후 6개월에 이 가정에 입양된 민영이는 현재 10세, 초등학교 3학년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모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다. 입양기관에 생모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는데, 생모는 찾지 못하고 외할머니를 찾아주었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생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생모는 현재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민기와 유사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같은 가정의 자녀로서 동일한 뿌리찾기 과정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이의 뿌리찾기는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원가족과 접촉하는 단계까지는 진행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외조모의 반대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입양아동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더 이상 생모에 대한 질문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은 아동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오빠인 민기가 생모를 만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줄곧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오빠를 부러워하면서 더욱 속상한 마음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모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다.

### (3) 영민, 승호 사례

생후 2개월에 입양된 영민이는 현재 11세며, 지적장애 2급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모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만나고 싶어 했다. 입양모는 입양할 당시부터 아이가 원하면 생모와 만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모를 만나고 싶어 하는 아이의 반응에 대해 서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혹시 생모를 만나서 가겠다고 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있었다. 처음에 생모를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계속해서 물어오자 편지지를 사주고 왜 생모가 만나고 싶은지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하였고, 아이가 쓴 편지를 보고나서 2007년 여름, 입양기관에 생모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입양기관에서는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 의사를 비쳤지만 아이가 쓴 편지를 보여주자 찾아주겠다고 했다.

2007년 12월에 부산에 살고 있는 생모를 찾았다. 그러나 2008년 2월에 생모 쪽에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내왔다. 그리고 뿌리찾기 과정 중에서 영민이의 지적장애에 유전적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됐다. 영민이의 작은 아빠와 둘째 형도 지적장애 2급이었다.

입양모는 입양 당시부터 모아온 영민이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부산지사에 갖다 놓았으니 마음이 바뀌거나 아이가 보고 싶으면 가지고 가서 보라고 했지만 생모는 지금까지 앨범을 가져가거나 만나겠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두 번의 상처를 줄 수 없어 생모가 이사를 가서 못 찾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적장애의 특성 중 한 가지로 집착하는 것이 있는데, 영민이는 생모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다. 지금도 가끔 생모를 아직도 못 찾았냐고 물어오지만 생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 아직 찾고 있다고 말해준다. 입양부는 처음 입양기관에서 생모에게 연락해 아이가 찾고 있다고 만날 것을 부탁할 때, 영민

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생모가 만나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생모가 영민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 입양을 보낸 것은 이해하지만 아이가 원하는데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입양모는 꽤 씩씩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생모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수영이와 민기의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점들이 영민이 사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영민이 사례에서는 차이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입양모는 뿌리찾기가 성공하여 생모를 만났을 경우, 생모가 자신의 자녀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걱정을 하였다. 이러한 걱정은 아마도 일반 사회 구성원들과 다른 입양가족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은 수영이의 사례에서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즉, 수영이의 생모가 수영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입양실무에서 뿌리찾기가 일반화될 경우 이런 사례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양부모의 걱정과 친생부모의 바람이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법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입양부모는 이미 입양아동의 '친부모'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영민이 사례에서는 생모의 태도가 뿌리찾기 과정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입양기관에 맡겨둔 사진첩을 보려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에게 상처를 남길 여지가 있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해 하얀 거짓말을 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부모에 대한 아동의 상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입양아동의 정체성 형성 과업도 제때 종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후 6개월에 입양된 승호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모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만나고 싶어 했다. 2007년 12월 생모의 주소지를 추적하여 찾아냈지만 생모는 현재 가출상태로 연락을 하지 못했다. 뿌리찾기 과정 중에서 입양 당시에 들었던 사정과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생모가 외도를 해서 승호를 낳았고 생모의 남편이 자신을 생부인 것처럼 속여 입양 동의를 하여 승호를 입양 보낸 것이었다. 승호에게는 이사를 가서 못 찾았다고 이야기 했고 계속 찾아보고 있다고 했지만, 승호가 눈치가 빨라서 그 뒤로 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전혀 물어보지 않는다고 한다. 눈치가 빠른 아이라서 혹시 생모를 찾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된다고 한다.

승호 사례는 앞선 사례들에서 나타난 공통점들과 생모를 만나지 못한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이슈들을 공유하고 있다. 승호도 생모를 만나지 못했고 궁금증은 해결되지 못한 채 잠재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 (4) 민지 사례

생후 1개월에 입양된 민지는 현재 9살이다. 민지가 입양되고 생후 12개월이 됐을 때 생모에게서 먼저 민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입양모는 막상 생모가 연락을 해오자 아이를 빼앗기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고 고민 끝에 아이가 아직 신생아이기 때문에 아이를 놓고 어른들이 만나는 것 보다는 아이가 더 커서 생모를 만나고 싶다고 할 때 만나게 하겠다고 생모에게 편지를 했다. 그 후로 생모와는 연락이 두절됐다. 자라면서 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입양아동 캠프를 다녀와서 생모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생모가 보고 싶다고만 했었는데, 2학년에 올

라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만나보면 안 되냐는 식으로 질문을 해왔다. 그래서 찾아도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길 해주자 그러면 실망할 것 같다고 찾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 후에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찾아달라고 해서 입양기관에 생모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생모를 못 만나도 상관없으니 자신이 있었던 기관에 가보고 싶다고 하여 초등학교 2학년 때 기관을 방문했다. 기관에 방문하여 아기들이 누워있는 침대도 보고 직접 안아보고 왔다. 기관 실무자에게 생모가 예쁜지, 키가 큰지, 똥똥한지 등의 질문을 하고 사진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기관에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그리고 나서 생모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증이 사라졌고 오히려 입양모에 대한 고마움의 눈빛이 많아졌고 안기는 등의 표현이 늘어났다. 그 후에는 더 이상 생모에 대한 이야기나 질문을 하지 않았다. 입양모는 생모와 연락이 되면 아이를 뺏기거나 아이의 사랑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생모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민지 사례에서는 이전 사례들과 다른 몇 가지 독특한 경험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입양아동의 경우 생모를 만나지 않더라도, 생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그 간의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뿌리찾기를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지의 경우 자신이 머물러 있던 입양기관에 있는 아기침대들을 둘러보고 실무자들로부터 생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듣는 수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생모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겠지만, 지금으로선 그 정도로도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둘째, 뿌리찾기 이후 입양아동이 입양모에 대해 더 친밀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 연령대의 아동들은 입양됨의 다른 한쪽 면에 있는 버려짐 또는 포기됨이라는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원천인 생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지금, 입양아동들은 입양됨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원천인 입양모와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지 사례의 경우 민지가 12개월 때에 생모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점과 입양모가 뿌리찾기 과정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이 앞의 사례들과는 차이점이 있다. 만일 입양초기에 입양부모가 친생모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면, 이 사례는 개방입양 사례로 분류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입양부모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주된 이유는 두려움이였다. 앞선 사례들에서 입양부모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두려움이다. 다만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는 그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지금 시점에서 뿌리찾기를 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입양모는 뿌리찾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생모를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 (5) 윤아 사례

생후 2개월에 입양된 윤아는 현재 12세다. 윤아는 공개입양 운동을 주도한 입양부모에게 양육되면서 어릴 때부터 입양 사실을 들어 왔다. 5세부터는 아기 출생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점차 생모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7세가 되던 해에 방송되던 TV 프로그램에서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 장면을 보면서 생모를 찾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겨울을 지내면서 점점 더 강한 욕구를 나타내어 입양부모가 입양기관 실무자에게 뿌리찾기를 요청하였다.

당시 이 입양부모는 그 기관의 입양부모 모임 회장이었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뿌리찾기를 시도하였고 금세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생모에게도 연락이 닿아 만나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입양부모는 생모에게 편지를 보내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약속을 정하자고 하였고 입양일기도 공개하였다. 생부모도 편지에 대한 답장을 쓰면서 가족사진을 보내왔다.

그런데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생부모 쪽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만나면 애가 우리를 원망할 것 같다. 좀 더 커서 만나고 싶다’는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입양부모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입양기관 실무자를 통해 설득 작업을 계속 했지만 결국 생부모는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결국 윤아의 뿌리찾기도 여기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입양부모는 입양자녀에게 이 일과 관련된 비밀수첩을 만들도록 하면서 편지와 사진을 보관하도록 하고 생모를 만났을 때 물어보고 싶은 말도 적도록 하였다. 윤아는 첫 줄에 “왜 나를 키울 수 없었나요?”라고 적었다. 생모를 만나는 데는 실패했지만 뿌리찾기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며 지켜보았기 때문에, 윤아는 더 이상 생모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가족사진을 통해 생김새도 알게 되었고 생모 가족의 상황도 알게 되었으며 나중에 커서 만나자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두 번 생모를 언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한 적은 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다.

윤아와 면접한 자료에서도 같은 답변들이 나왔다. 최근 생모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단짝친구가 많아요. 그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로 OO이라고 있어요. 근데 OO이 엄마를 보면 되게 착하시고 OO이 친구들을 되게 챙겨주세요. 그 친구들은 키워주신 분이 다 친엄마들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친엄마가 있으면 재미있기도 하겠고, 그렇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나가면 엄마한테 끌어안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 아이처럼 지금 키워준 엄마도 있지만 친엄마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한 윤아는 입양기관에서 주최한 캠프에서 직접 사례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궁금한 것들: 제가 7살 때, 텔레비전에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봤어요. 제가 잘 보니까 엄마도 아빠도 같이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외국으로 입양 간 언니, 오빠들이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는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저는 궁금해졌어요. 같이 텔레비전을 보던 엄마에게 제가 물었어요. ‘엄마, 나도 저기에 낳은 엄마 신청하면 낳은 엄마가 나를 만나러 나와 줄까?’ 엄마는 저에게 ‘윤아 네가 낳아주신 엄마를 정말 보고 싶을 때는 엄마한테 꼭 말해. 윤아가 낳아주신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줄게.’ 저는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 왜 나를 키울 수 없었는지도 궁금했고,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궁금했어요. 또 어디에 사는지? 나에게 형제가 있었는지? 같이 사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했어요. 엄마는 그 때, 제가 낳아주신 엄마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니까 OO선생님들과 연락해 낳아주신 부모님의 가족사진과 편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낳아주신 부모님은 지금 만나기가 어렵다고 커서 만나자고 했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거의 다 해결되었어요. 둘째, 낳아주신 부모님이 만나주지 않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좋았어요. 왜냐하면 커서도 만나주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커서 만나주겠다고 하니까요. 셋째, 때때로 낳아주신 부모님이 생각날 때는 언제인가요? 없어요. 별로 생각나지 않아요.”

윤아의 사례는 생모가 가족사진을 보낼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갑자기 거부 의사를 밝혀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앞선 사례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단계와 이슈들에서는 별다른 차이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윤아 사례가 갖고 있는 가치는 면접 자료를 통해 다른 아동들에 비해 입양아동의 주관적인 경험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 있다. 또한 다른 사례들이 보여준 뿌리찾기 경험의 특성들을 확증해 주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모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뿌리찾기 과정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입양아동의 욕구를 상당히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입양부모와 친생부모, 입양기관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 2) 사례 간 분석

사례 간 분석에서는 앞서 제시한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뿌리찾기의 전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국내에서 입양가족이 뿌리찾기를 시도할 때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단계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었고 각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슈를 해당 단계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 (1) 입양됨의 인식

이 단계는 뿌리찾기의 사전단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뿌리찾기를 하기 위해서 입양아동들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입양 부모에 의해 입양되었다는 사실의 이면에 있는 또다른 진실, '버려짐' 또는 '포기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희미하게만 그려져 왔던 친생부모의 존재가 이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왜 나를 버렸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나를 버린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입양 아동의 입장에서 그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입양부모다. 입양부모와 충분한 애착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 입양에 대한 대화를 나눠왔다면 '부모'에게 자신을 낳은 사람들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입양부모도 그 질문에 더 이상 충분히 답변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입양부모도 친생부모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2) 호기심 폭발

이 단계는 친생부모에 대한 질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다. 입양부모들이 제대로 답변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아동들은 점점 자주 친생부모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낸다. 호기심이 폭발할 지경이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사례들을 살펴볼 때 이 단계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만 6세에서 8세 정도)에 찾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오히려 입양부모의 감정이다. 공개입양을 진행해 왔고, 뿌리찾기를 염두에 두어 왔던 입양부모들조차도 이 단계에서 쏟아지는 질문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은 '나(우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연결되는 감정일 것이다. 즉, '생모를 만나고 나서 혹시나 따라가겠다고 하면 어찌지?'라는 불안감이 다. 또한 생모를 만난 이후 입양아동이 겪을 수도 있는 예측불가능한 경험들도 걱정된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례들만을 놓고 볼 때 이러한 걱정들은 기우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신이 예외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자체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 (3) 불안한 기다림

더 이상 입양아동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 진실하게 답변하기를 원하는 입양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입양기관에 뿌리찾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입양실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조합하여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배제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입양가족 앞에 놓여 있다. 우선 생부모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입양특례법이 버티고 있다. 입양기관은 이 법을 근거로 성인이 되지 않은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입양부모들은 오직 입양기관의 '선처'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 다음 장애물은 양육 포기 전후 생부모의 행태다. 상당수의 생부모들은 입양실무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기록하도록 한다. 또다른 상당수의 생부모들은 연락을 끊고 주소를 옮긴다. 그러나 입양기관이 적극적으로 뿌리찾기를 지원하기로 하였다면 생부모를 찾아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마지막 장애물은 어렵사리 찾아낸 생부모가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일부러 연락을 끊고 주소를 옮길 정도라면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많은 장애물들을 넘으면서 입양부모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다림'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늘 불안함을 동반한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일곱 명의 아동 중 다섯 명이 생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이처럼 만나지 못하게 된 상황도 입양아동과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입양아동들에게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다. 즉, '왜 나를 만나지 않으려 하는 걸까?'하는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수많은 질문들이 파생될 수 있다. 입양기관과 부모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아는 대로 정직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입양부모들도 큰 실망감과 함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낳은 부모로서 그 정도의 의무는 해야 하지 않는가?'하는 불쾌한 마음이다. 뿌리찾기 과정을 중개하는 입양실무자들은 이런 상황과 감정들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4) 진실을 만나는 순간

이 단계는 친신만고 끝에 입양아동과 입양부모가 생부모를 만나게 되는 단계다. 생부모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입양기관 실무자의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입양가족들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한다. 입양부모들은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혹시 생모가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는 어떤 사람일까?"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된다. 입양아동들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질문들을 되새기면서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고민한다.

그리고 바로 '그 날', 입양아동과 부모는 비로소 진실을 만나게 된다. 그 진실은 기대 이하일 수도, 기대 이상일 수도 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다. 이 순간에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생부모라는 입양의 세 당사자가 갖는 감정과 태도, 반응 등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은, 진실을 만나게 됨으로써 입양아동은 환상에 그칠 수도 있었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얻게 되었고, 입양부모도 모름으로 인한 불안감과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생부모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궁금증, 불안함 등을 어느 정도 벗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입양아동이 더 이상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양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 (5) 그래, 내가 진짜 엄마야

이 단계는 입양부모가 입양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시기다. 입양아동으로서는 그저 궁금해서 생부모를 만나길 원했으며, 그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입양부모에게 오히려 더 강한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입양부모로서는 새로운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미 충분히 애착이 형성된 상태에서 뿌리찾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애착이나 애정 감정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투심에서 비롯되는 미운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생모에 대해서는 지금도 형편이 어렵다면 측은지심을, 이제는 잘 살고 있고 아이를 보낸 이후에 다른 자녀들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다면 패쇄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같은 엄마로서 동병상련을 느낄 수도 있고, 막내동생 같은 친밀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다." 그것이야말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실이다.

#### (6)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 하나는 생모를 직접 만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게 된 입양아동들은 그 이후로 생부모에 대한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아동들의 나이가 많지 않고 뿌리찾기 이후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생부모에 대한 질문은 실제로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생부모에 대해서만큼은 긴 침묵의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어쩌면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그보다 더 앞선 청소년기에 다시 생부모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입양부모와 갈등하게 될 때 더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며, 그때가 오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건강한 입양가족이라면 건강하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이 되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입양인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입양자녀가 생부모에게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지만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제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해 가며 묵묵히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먼 훗날,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될 생부모는 또다른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 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입양가족들의 뿌리찾기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뿌리찾기를 시도한 입양가족들과 접촉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섯 가족의 사례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제들은 '입양됨의 인식', '호기심 폭발', '불안한 기다림', '진실을 만나는 순간', '그래, 내가 진짜 엄마야',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연구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은 대부분 성인 입양인들이었다. 즉,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입양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게 된 입양인들이 이후에 생부모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연구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부터 입양아동의 뿌리찾기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성인이 되어 뿌리찾기를 시도한 사례들을 접촉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뿌리찾기의 동기에 대한 선행연구들 간의 모순된 결과와 관련된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뿌리찾기를 시작한 동기는 일탈이나 문제해결 차원이 아니라 발달단계 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박인선(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뿌리찾기의 단계도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Reits와 Watson(1992)이 제시한 단계들을 보면 성인 입양인이 스스로 생모를 찾아나서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연구에서는 실제로 생모를 찾아 연락하는 주체는 대부분 입양기관의 실무자였다.

공통점들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뿌리찾기를 시도한 입양아동과 가족들이 대체로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생모를 만나 해결하고 싶었던 수많은 의문들의 답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은 입양부모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몇 가지 후유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입양가족은 이제 하나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입양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의 유형도 대체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들과 일치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입양가족의 뿌리찾기와 관련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입양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필요하다. 먼저 뿌리찾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생부모의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은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양아동(그리고 입양인)의 욕구와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부모의 권리와 입양인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면서 뿌리찾기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도적 장치란 입양특례법에 뿌리찾기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입양과 관련된 정보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입양기관과 그 기관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침들을 제안한다. 먼저, 뿌리찾기와 관련된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욕구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친생부모와 상담시에도 뿌리찾기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뿌리찾기에 대한 친생부모의 견해에 대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이론과 본 연구의 결과를 검토해 볼 때, 공개입양가정에서 성장하는 대부분의 입양아동들은 만 3세를 전후로 입양이라는 개념을 의식하게 되고, 이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들을 발전시킨다. 만 6세 이후에는 입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생부모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기 시작한다. 연구자들은 입양실무자들이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생부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욕구가 일치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면, 이때가 바로 뿌리찾기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면, 청소년기에 이르러서까지 생부모에 대한 환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잠재된 욕구가 청소년기의 특성과 맞물리게 되면 입양가족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양의 세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다른 당사자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모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핵심적인 비밀보장은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하여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 시기의 아동들 대부분은 그저 생모를 한번 만나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놓고 답을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입양실무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지는 때는 입양의 세 당사자가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과 그 직후의 시간들이다.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만나는 자리에 함께 동석하여 그 상황을 중재할 필요도 있다. 사전에 각자가 원하는 바를 듣고 서로에게 전달하는 준비 작업도 필요하다. 아마도 입양부모들이 이 작업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만나고 난 이후에 각 당사자들이 경험하게 될 다양한 감정과 반응들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연구결과에 의한다면,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생부모에 대한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입양아동의 반응은 의외로 '싱거웠지만' 그 이후에도 이들은 생부모를 종종 떠올리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만나거나 그 가정을 방문하거나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좌절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개입은 입양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입양부모들의 대처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입양부모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선택한 일'이라며 비난한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입양부모의 감정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과 함께 가족이나 관계망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생태체계적 개입도 필요할 것이다. 생부모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동안 그리움으로만 남아 있던 자신의 생자를 확인한 지금, 이들은 다시 자녀를 되찾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생부모의 감정을 수용하는 한편,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바람직한 삼각관계(입양부모-입양아동-생부모)를 형성해 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입양모를 주요 연구참여자로 활용함으로써 입양부와 입양아동의 직접적인 경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으며, 뿌리찾기를 시도한 이후 아직 아동기에 머물러 있는 입양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탐구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경주. 1997. “해외입양인과 친부모의 만남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미정·이숙영. 2007. “국외입양인의 아동기 성장환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2): 87-118.
- 박인선. 1994.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심석순. 2000. “해외입양인 친부모 찾기 지원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미선. 2004.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논점과 과제”. 『임상사회사업연구』 1(1): 63-74.
- 이미선. 2005. “해외입양인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관한 조사”. 『임상사회사업연구』 2(2): 113-140.
- 한국입양홍보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pak.co.kr 입양일기
- Brodzinsky, D. M., M. D. Schechter., and R. M. Henig. 1992. *Being adopted: The lifelong search for self*. New York: Anchor Books.
- Melina, L. R. 1998. *Raising adopted children: Practical reassuring advice for every adoptive parents*. New York: A Solstice Press book.
- Reits, M., and K. W. Watson. 1992. *Adoption and the family system*.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chechter, M., and D. Bertocci. 1990. “The meaning of the search”. In D. Brodzinsky and M. Schechter (Eds.) *The psychology of adoption* (pp. 62-9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hooler, J. 2001. “Search and reunion issues”. In V. Groza and K. F. Rosenberg (Eds.) *Clinical and practice issues in adoption* (pp. 49-80).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ing Group, Inc.
- Triseliotis, J. 1973. *In search of origins: The experience of adopted people*. Boston: Beacon Press.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Searching Roots of Adoptive Families

**Kwon, Ji-Sung**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Ahn, Jae-Ji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Byun, Mi-Hee**

(Baekseok University)

**Choi, Woon-Sun**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earch' experiences of adoptive families. To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in searching for birth families, the researchers made contacts with adoptive families who had tried the search before, got informed consents from them, and took in-depth interview with each family. The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was taken to analyze the data collected. Data collected from five adoptive families were employed for within-case analysis and cross-case analysis. The themes emerged from cross-case analysis were 'the awareness of being adopted', 'curiosity explosion', 'the anxious waiting', 'the moment the truth was found', 'Indeed, I'm a real mom', and 'Then, there was a sil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policy and practical guidelines to support the search of adoptive families were suggested. Also, the suggestions for the following studies were made to obtain more abundant information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Key words: adoptive family, the search for birth family, qualitative case study

[논문 접수일: 09. 12. 31, 심사일: 10. 01. 14, 게재 확정일: 10. 02. 04]